# '성경의 맥을 따라' 제13주

## 1. 후기 예언서란?

오늘부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후기예언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통독에 앞서 "후기예언서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脈)을 따라'를 시작하면서 「성경통독의 긴 여정을 출발하며」라는 첫 번째 길잡이 자료에서 "성경의 목록과 분류"

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개신교가 채택하고 있는 구 약성경의 분류와 목록 중 "예언서"는 옆의 도표와 같 습니다.

여기서 전기(前記)와 후기 (後記)는 시대적 구분이 아 니라 (前期와 後期가 아님) 정경 안에서의 순서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은 열두 소예언서에 나오는 사건보 다 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구약성경 에서 전기예언서로 분류된 네 권의 책들은 그리스어 구 약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 류됩니다. 특히 이들 역사서 는 '역대기계' 역사서와 구

|        | 튜         | <u>.</u> 류 | 목 록     | 약에          |
|--------|-----------|------------|---------|-------------|
|        | _         |            | 여호수아(기) |             |
|        |           |            | 사사기     | 삿           |
|        | 전기예언서     | 에어 11      | 사무엘(기)상 | 삼상          |
|        |           | 에진지        | 사무엘(기)하 |             |
|        |           | 열왕기상       | 왕상      |             |
|        |           |            | 열왕기하    | 왕하          |
|        |           |            | 이사야(서)  | 사           |
|        |           | 대예언서       | 예레미야(서) |             |
| 예언서    |           |            | 에스겔(서)  | 겔           |
| Nebiim |           |            | 호세아(서)  | Ю           |
| 주전     | 후기<br>예언서 | 12<br>소예언서 | 요엘(서)   | 예           |
| 200년경  |           |            | 아모스(서)  | <sub></sub> |
| 200단경  |           |            | 오바댜(서)  | 어피          |
|        |           |            | 요나(서)   | αл          |
|        |           |            | 미가(서)   |             |
|        |           |            |         | 나           |
|        |           |            | 하박국(서)  | 햐           |
|        |           |            | 스바냐(서)  | 습           |
|        |           |            | 학개(서)   | 학           |
|        |           |            | 스가랴(서)  | 슥           |
|        |           |            | 말라기(서)  |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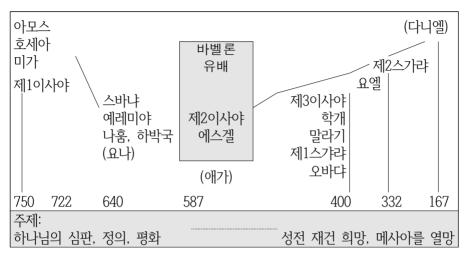
분하여 '신명기계' 역사서라 부르며, 본격적인 의미의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만을 가리킵니다. 이 후기 예언서는 다른 말로 '문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는 요나서를 제외하고 후기 예언서의 책들은 모두 동명(同名)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문서화한신탁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후기 예언서는 다시 대(大)예언서와소(小)예언서로 분류되는데, 이는 책이나 예언자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입니다.⊠

## 2. 예언서들의 시대 배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장, 곧 역사를 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예언자는 한자로 '맡길'예(預)자를 써서 預言者라고 하는데, 이는 '미리'예(豫)자를 쓰는 예언자(豫言者)와는 다릅니다. 즉, 예언자(預言者)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변인인데, 우리 시대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대변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당시체제와 사회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사람들로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초인적이고 비현실적인신비에 쌓인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그들 앞에 놓인상황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아니, 저들이야말로 민족의 역사 대열에 앞장서거나 또는 단신으로 그 흐름을 가로막아 서면서 민족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운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수성은 저들은 긴박한 현실 앞에서 결단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결코 동양의 현인(賢人)이나 또는 그리스의 철인(哲人)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민족에 대한 책임과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는 실천가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들의 무대가 바로 그 민족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 개개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들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윗-솔로몬 왕국의 쇠퇴와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은 몇 개의 군소 국으로 나뉘었습니다(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모압, 암몬, 에돔, 아람/시리아 등). 이들 나라들은 모두 다윗-솔로몬식의 전제 군주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지 못한 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 제1이사야, 미가 등이 활동한 기원전 8세기의 상황은 앗시리아라는 대제국의 등장과 더불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앗시리아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장악한 뒤 국지적 규모를 넘어선 대제국으로서 9세기 후반부터 유프라테스 서부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8세기에는 제국주의적 초강대국 앗시리아의 팽창과, 이를 막아 보려 안간힘을 쓰는 시리아-팔레스틴 군소국들의 저항, 그리고 결국 후자가 전자에 예속되고 마는시기였습니다.

왕국 분열 이후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 때에 국가발전의 절정기에

이릅니다. 오므리 왕조 때 아합이 주도한 연합군이 앗시리아(샬마네셀 3세)의 서방 진출을 좌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앗시리아가 재기하여 다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아닷니라리 3세 때까지는 아람의 전성시대가 계속됩니다. 당시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시대였는데, 예후는요단강 동부의 거의 전 지역을 시리아에 빼앗겼고(하사엘;왕하10:32-33),여호아하스는 수도 사마리아성이 포위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벤하닷;왕하6:24-7:20).이후 앗시리아 왕 아닷니라리 3세가 시리아를 누릅니다(기원전 803년).하지만 앗시리아는 내부분열로 혼란에 빠졌고,북왕국 이스라엘은 숨돌릴 여유를 얻게 되었으며,나아가 다시 한 번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벤하닷을 쳐부수고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였고(왕하 13:25), 한창 부를 증대시키고 있던 남왕국의 아마샤를 벳세메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성전과 왕실 금고를 약탈함으로써 요아스와 아마샤가 비축해 두었던 막대한 부를 북왕국의 왕실로 이전시킬 수 있었습니다(왕하 14:11-14). 이는 북왕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토대가 되어 북왕국은 여호아스의 후계자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르러 아합 시절의 부를 능가하는 제2의절정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왕하 14:23). 열왕기하 14장 25절은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왕상 8:65). 이렇듯 정복지로부터 조공을 받아냄으로써 여로보암 2세의 왕실은 매우 부유해졌고, 이와 더불어 왕실의 정책에 참여했던 많은 귀족들의 부가 크게 확대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부귀영화는 그가 죽자마자 곧 종식되고 말 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라는 6개월 만에 쿠데타의 희생 물이 되고 말았으며, 그때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쿠데타에 의해 왕조가 바뀌는 극한의 내란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란의 와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앗시리아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언서를 성경에 실린 차례대로 읽지 않고 시대, 사건과의 관계, 예언 내용의 발전적 관점, 매일 읽을 분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읽을 것입니다. 아모스 - 호세아 - 제1이사야 - 미가 - 스바냐 - 나훔 - 요나 - 하박국 - 예레미야 - 에스겔 - 제2이사야 - (역대기계 역사서) - 제3이사야 - 학개 - 말라기 - 스갸랴 - 오바댜 - 요엘. 이러한 차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과 뭇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서히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게 하려는 뜻에서입니다. 특히 열두 소예언서는 각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 제13주 첫째 날 | 내용         | 읽을 본문 | 시편 기도 |
|-----------|------------|-------|-------|
| 세13구 첫째 글 | 하나님의 경고 말씀 | 암 1-4 | 시 11  |

| 제13주 둘째 닐 | . 내용        | 읽을 본문 | 시편 기도 |
|-----------|-------------|-------|-------|
| 에IST 칠째 릴 |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 | 암 5-9 | 시 55  |

난 예언자 아모스요. 원래 유다 땅 드고아에서 양과 염소를 치던 목자였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야산지역에서 말이야. 그곳은 남으로는 네겝 지역이, 동으로는 사해로 접어드는 유다 광야 가 펼쳐진 참 아름다운 곳이야. 하지만 야산과 언덕이 가팔라서 농사 짓기는 망했어. 그래서 다들 나처럼 목축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만 했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다가 가시덤불에 시달리다보 니 성격조차 그 땅을 닮아가더군. 한마디로 사납고 거칠어졌지.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

셨어. "아모스야, 내 가슴에 가득 찬 말을 이스라엘에 전하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지. "주님, 왜 하필이면 저를…. 전 예언자가 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솜씨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자 훈련을 받은 많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 "아모스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구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려 있어(8:11). 항상 내앞에 깨어 있어야 할 예언자들이 백성들과 똑같이 타락해 버렸구나. 온 땅의 풍요로움이 예언자들까지도 먹고 마시며 돈을 버는 데에만신경을 곤두세우도록 해 버렸어. 이스라엘에는 탐욕을 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내가 너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겠느냐? 광야에 사는 너만은 아직도 풍요로움에 물들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거칠고 사납기 마련인 목자인 나에게 오셨던 거야. 그들이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기에 거칠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던 게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냅다 소리쳤지.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처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나는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2:6-8; 6:2).

이런 메시지를 내가 북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포한 것은 여로보암 2세(주전 783- 743)의 통치 말기였어. 예후 왕조가 시작된 지 4대째 가 되어 나라가 안정되었을 무렵이지. 선왕 여호아스 시절에는 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 그 전에 빼앗긴 요단 건너편의 성읍들을 탈환하

는 전적을 올렸지(왕하 13:25). 그런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그 여세를 몰아 그 옛날 솔로몬의 왕국이었던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영토를 되찾았던 거야(왕하 14:25). 그러니 완전 축제분위기였을 수밖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부풀려 주시는 분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이 하는 예언이라는 게 그런 식이었지.

정말 웃기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노를 쏟아놓으려 하는데, 그 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주변 국가들을 모두 속 국으로 만들어 그들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서 이웃나라-다마스 쿠스, 가자와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전쟁으로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1:3-2:3).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유다(2:4-5)도 거꾸러질 거라고 했더니 열광하는 거야. 한심한 노릇이지.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날뛰다니. 그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예언 말씀이 그들 가슴속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선포했지.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5:18.20).

이스라엘의 실상을 내게 처음으로 알려준 이들은 상인들이었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통상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치들의 왕래가 잦았어. 그래서 나도 어렵지 않게 이들과 길동무를 해서 다닐 수 있었지. 그런 와중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얻어듣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 이놈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궁리하다가 마침내 기발한 생각을 해내서지금 써먹고 있다는 거야. 양곡을 되어주는 되를 작게 만들고 추와 저

웈도 가짜로 조작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였어. 이놈들은 야 금야금 잔재미를 느끼며 양민들을 속여먹으면서도 죄책감을 하나도 못 느끼더라니까. 그러니 축제나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다시 장사를 할까 기다리며 외상장부나 정리하고 있지. 누가 이자를 연체했고 언 제까지가 채무 마감일이니까 그때까지 빚을 못 갚으면 데려다가 종살 이를 시켜야겠다는 썩어빠진 궁리나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까 온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그러다 마침내 폭 발하고 말았지.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 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 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늘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 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 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 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 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8:4-9).

장사치들과 갈라선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 들어갔어. 광야에서 온 촌놈 눈에는 모든 게 다 으리으리하더군.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그렇고. 아, 시장에서 다마스쿠스제(製) 상아 침상을 버젓이 팔고 있는 걸 보고 놀랬어. 최고급 수입가구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에 드나드는 이들은 또 어떤 줄 아는가. 옷을 번드르르하게 차려 입은 것은 그렇다 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향긋한 냄새가 여운을 남기는 걸 보면 꽤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다닌다는 걸 짐작하겠더구만. 하기야 그 정도로 잘 사니까 이런 상아 침상도 보러 다니겠지.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시장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며 거리풍경을 보니까 내 머리에 선하게 그려지더군.

내 비록 광야에서 아무 것도 없이 살아왔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이해 못할 정도로 벽창호는 아니야. 나라가 번영하고 경제가 윤택해진 효과를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해. 문제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번영의 기쁨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고 있느냐는 거야.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누구는 매일같이 남편을 졸라 바산의 암소처럼 피둥피둥 살쪄 있고, 누구는 하루 끼니를 못 이어 빚을 지다종으로 팔려 가는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 현실이 그러한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니 외면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계속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지. 하나님이어떤 분이신가? 이집트에서도 떵떵거리는 바로를 비롯한 상류층은 젖혀두고 그 밑에서 고통 받으며 울부짖는 노예들의 소리에 귀기울이신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어찌 그 옛날 바로가 했던 방식으로 자기들의 동족을 종으로 부리면서 번영을 구가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는 성문 앞자리가 그만이더군. 유동인구도 많을뿐더러 뭐니 뭐니 해도 성문 앞은 그 성의 치안과 법을 담당한 쟁쟁한 실력자들이 상주해 있는 곳이니까. 사실 이놈들도 사회에서 재력이 있는 부유층과 한통속이지. 시비를 올바로 가리기보다는 뇌물을 먹고 가난한 이들이 낸 소송사건을 묵살해 버리는 놈들이니까. 그럴듯한 자리를 물색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면서 곡을 했지. '아이고, 아이고'하며 곡을 하니 다들 몰려들더군. 초상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만가도 읊었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5:2). 몰려든 사람 중에서 특히 재판을 맡고 있는 이들이 눈에 띄더군. 그래서 그들 면전에 대고 이렇게 외쳤지.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5:7.10-11).

내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렇듯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도, 비리를 고발하며 양심을 세워야 할 사제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있지 못했어. 온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가난한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거야.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많이 가져다 바치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닮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입에 밴 빈소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나. 그저 "베델로 오라. 길갈로 오라. 재물을 바치고 십일조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를 즐겨 받으신다"는 같잖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들 옆에 서서 똑같은 말투로 비꼬아 주었지.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소리로 알리면서자원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4:4-5).

오래 전부터의 성소인 길갈과 베델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데? 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지난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잘 살기 위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라고. 그래 내 분명히 말했지. 사회정의에 애쓰지 않고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은 하나님께서 반겨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멸망을 피하려고 성소에서 어쭙잖은 예식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는,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사십 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굿의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 기윤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5:21-27).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난리가 났지. 원래 교회의 생리가 그렇지 않은가. 사회의 비리를 고발할 때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도, 정작 비난의 화살이 교회안의 비리로 향하면 발끈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가장 비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고치려는 마음조차 품지 않으니 말이야. 성(聖)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성(城)을 높이 쌓아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해 놓았거든. 그러니 그 성에 안주하면서 푹푹 썩어들어 갈 수밖에.

그런 실정인데 내가 헛 껍데기 의식은 가라며 반기를 들었으니 가만있을 리가 있나. 베델의 사제 아마샤가 나에게 맞부닥쳐 왔어.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7:12-13).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나님을 팔아서 밥벌이하는 놈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소문해 보니까 아마샤가 이미 왕에게 전갈을 보냈더구만.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임금님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자는 이 나라를 망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전 갈을.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내 사명을 다했다 싶더라구. 백성 가운데서 선포한 야훼의 말씀이 최고 통수권자인 왕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말이야.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니 말이야. 당신 시대, 당신 나라는 어떻지? 당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일깨우며 그릇된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정신이 그곳에 살아있는가?▩

| 제12조 세페 ㄴ | <b>13주 셋째 날</b><br>부정한 아내 이스라엘 |      | 읽을 본문 |        | 시편 | 기도  |
|-----------|--------------------------------|------|-------|--------|----|-----|
| 세13구 갓째 = | 부정한 아내                         | 이스라엘 | 호     | 1장-9:9 | 시  | 103 |

| 제13주 넷째 <b>날</b> | 내용      | 읽을 본문      | 시편기도  |
|------------------|---------|------------|-------|
| 세13구 것께 길        | 하나님의 사랑 | 호 9:10-14장 | 시 122 |

저는 호세아입니다. 예언자 아모스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활 동했죠. 하지만 그 방식은 많이 달랐어요. 아마도 그 차이는 이스라엘 의 문제를 아모스는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았고, 저는 안에서 몸으로 겪으면서 보았던 데서 기인한 것 같아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일 도 중요하지만, 겪어서 아는 일도 중요하죠. 저는 제 결혼생활의 경험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경험과 하 나님의 경험이 일치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경험이란 제 아내 고 멜이 바람을 피운 것이었어요. 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지…. 하지만 그것은 제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이 참 심했지요. 그런데 이런 성적 문 란은 종교제의와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이른바 풍요제의가 그것인 데, 신전마다 '거룩한 여인들'이라 불리는 창녀들이 상주해 있어 그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풍성한 곡식과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 에 영합하는 사이비종교가 판을 친 것인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 갔죠. 풍요제의란 한마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신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충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굴종시키려는 사탄의 속삭임이죠.

비록 제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어도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은 끊지 못하겠더군요. 사랑이 뭔지! 저는 여기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도 그 사랑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의 박대로 큰 상처를 받고 계시는 하 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에게로 가 바람을 피우고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지요. "이제 주님 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 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님 앞에서 살 것이다"(6:1-2).

야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모두 용서해 주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별다른 게 필요 없더군요. 사람들이 화냥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멜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축해서 데 려오기만 하면 됐어요. 모세 법에 따라 이혼증서만 써주면 서로 남남 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사이를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 관계죠. 사실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시련기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경 제사정도 한결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죠. 아무 것도 없던 광야시절에는 오직 하 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지요. 그러나 이제 수중에 무언가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 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배신당하는 아픔, 그 아픔을 제가 고멜로부터 충분히 받았거든요. 가 슴을 저며 오는 아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애련한 소리가 들리더군 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 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 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 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 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11:1-3).

번영에 도취해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를 전하긴 전해야겠는데, 궁리 끝에 이번에는 고멜이 저에게 낳아준 2남 1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지요. 첫째 아이에게는 이 즈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즈르엘 벌판에서 왕들을 죽이고 왕조 를 세운 일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죠. 5공화국 시절에 '광주'라는 이름 만 들먹거려도 그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던 것처 럼요.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는 각각 로루하마와 로암미란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사랑 받지 못하는 천더기와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풋 기 문란하게 놀아나면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침을 받으리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죠. 그런 조짐은 실제로 여로 보암 2세가 죽고 나자 본격적으로 벌어졌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 랴가 6개월간을 다스리고 살룸의 반란으로 쓰러졌고, 살룸 또한 1개 월 후 므나헴의 반란으로 무너졌어요. 그동안 병거를 믿고 군인이 많 다고 우쭐댔지만, 바로 그 때문에 반란이 잦았지요. 그래서 반란을 진 압하기 위해 병력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겠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져 원망의 소리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백성 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정치에 야심 을 갖고 있는 다른 장군들이 그런 흐름을 놓칠 리도 없구요. 한마디로 자기 무덤을 파는 악순환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야 할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을 갈아 이렇듯 악을 심었으니 거둘 것이라곤 악독밖에는 없죠. 그러니 야훼의 호된 질책을 뼈저리게 받을 차례죠.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13:4-9). 활활 타오르는 듯한 야훼의 분노를 입에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긴 했지만, 그분께서 실상 바라시는 것은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입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제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초대였지요. 그러나 그런 깊은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저 잘못에 대해 응징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지없이 큰 기쁨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실 하나님이심을 미처 생각도 못하더군요.

이 판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비록 제 목소리가 작고 미약하더라도 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게 돼요.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자신과 이웃의 관계도 새로 정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번번이 외면당하고 배척받으면서 제 목소리도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외치고 또 외쳤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앗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

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14:1-3).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어느덧 저도 예언자로서의 이름을 날 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명망과는 달리 제 개인생활은 그야말로 실패 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써 화냥년이라는 비난을 받던 고멜을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려는 위기에서 사랑으로 구해내어 집으로 데려왔건만, 천 성적으로 타고난 끼를 죽이지 못해 그예 집을 나가 창녀로 변해 버렸 어요. 그렇지만 매춘부의 인기도 젊었을 때뿐이지 늙으면 누가 돌아 나 보겠어요. 제가 말씀 선포에만 매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 쁘게 지내던 그 시기에 우연히 고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린다는 것이었죠.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보니 생계를 꾸려갈 수입원 이 없어 빚돈을 얻어 쓰다 마침내는 노예시장에까지 흘러들어 온 거 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더군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제가 어떻 게 나올까 궁금해하더군요. 그 동안 심판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좋은 표징이지 않겠느냐면서요. 마침내 노예시 장이 열리는 날이 왔어요. 노예들이 즉 늘어서 있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대상인 고멜도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팔리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모든 눈길이 저에게로 쏠리더군요. 행실 에 따른 벌이 마침내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는 메시지가 지금이라도 쏟아져 나올 줄 기대하면서요. 그러나 그날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 열 다섯 세겔과 보리 한 호벨 반으로 고멜을 사고는 작은 목 소리로 고멜에게 이야기했을 뿐예요.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 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3:3).

언젠가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히 밝혀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오랫동안 왕도 대신도 없고 희생제물도 석상도 없으며 에봇도 수호신도 없이 지낸 뒤에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요. 지금이야 그런 미래의 일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기에 저보고 '병신 같은 놈'이라느니 '순정파'라느니 하며 비웃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새록새록 알아 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더군요. 그 희망마저 없으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흑이지요. 저며 오는 제 가슴 속 깊숙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전해 오더군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세레나데가요. "그 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 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2:19-20).

| 제13주 다섯째 날 | 내용      | 읽을 본문 | 시편기도 |
|------------|---------|-------|------|
|            | 이사야의 소명 | 사 1-6 | 시 87 |

| 제13주 여섯째 날 | 내용       | 읽을 본문  | 시편 기도 |
|------------|----------|--------|-------|
| 세13구 역갓째 리 | 이스라엘의 희망 | 사 7-12 | 시 72  |

#### 1. 제1이사야?

앞서 '예언서들의 시대 배경'과 '예언서를 읽는 순서'를 소개할 때, 이사야 예언서를 한 권이 아니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나누어 소개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더불어 분량이 많아 대(大)예언서로 분류되는데, 총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길이가 긴만큼이나 많은 세월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거의 200-300여 년의 세월을 거기서 더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예언자가 이 긴 세월동안 활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서를 한 사람이 전부 쓴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 (1-39장, 40-55장, 56-66장) 써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각각의 저자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이사야 부분은 기원전 740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교체되기까지 약 40년 동안, 제2이사야 부분은 바빌론이 멸망할 무렵인 기원전 550년에서 이스라엘의 귀향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기원전 538년)이 내려지기까지 약 10년 동안, 그리고 제3이사야 부분은 귀향후에 써졌습니다. 이 모두가 한데 모아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사야예언서가 된 것입니다.

## 2. 제1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

이사야서 1-39장을 이 책의 실제 순서에 맞추어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언자의 신탁(神託이란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일컬음)들을 각기 선포된 역사적 맥락 안에 자리매기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편집자들이 예언자활동의 연대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알아듣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은 각기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자기네 신탁들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귀양살이 동안에 혹은 귀양살이 이후에 쓰인 것으로서 편집자들이 이사야의 전언을 현실화하려는 집념으로 끼워 넣은 대목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맥락에 맞추어 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기를 보여 줌으로써 어떤 신탁들이 그가 활동한 어떤 시기에 속하는지를 가려 보기로 시도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서두(1:1)에서 자신이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던 시기를 묘사하면서,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 렘에서 직접 활동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1에서는 이사야가 "웃시 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의 소명을 받았음을 적고 있는데, 이 사 건은 기원전 740년에 일어났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 첫 번째 시기: 요담의 통치 기간(주전 742-735년)

중동 지방의 역사에서 주전 8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국제적 사건은

앗시리아라는 강력한 제국의 등장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이 등극하면 서, 이 제국은 중동 지방 다른 나라들의 평온함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왕국은 커다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었으며, 앗시리아의 영토 확장 정책이 아직 유다 왕국에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번영 및 평화"와 아울러 종교 활동이 활발하여 여러 성소에서는 대축제를 지내고 화려하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사회질서에서 외양과는 사뭇 다른 상황, 즉 불의, 재판관들의 방종, 당국자들의 부정부패, 대지주들과 거상들의 탐욕, 지배자들의 억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요담의 통치 말기에는 불의한내적 상황에 외적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앗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과유다 왕국을 자기에게 종속된 국가로 만들려고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5장을, 적어도 후기 편집자들이 덧붙인 몇몇 신탁들을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서는 1:10-20; 1:21-26; 2:6-21; 3:1-15; 3:16 -4:1; 5:1-7; 5:8-25; 5:26-30절이 있고, 10:1-4절은 요담의 통치 말기에해당합니다.

## 두 번째 시기: 아하스의 통치 기간(주전 735-715년)

이 시기에 이사야가 벌인 활동을 이해하려면, 이른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은 기원전 740년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 시작된 몇 차례의 대규모 전란의 곁가지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앗시리아는 각지방의 정치적 지형을 무자비하리만치 뒤바꿔놓으며 정복한 땅에 온갖 파괴를 일삼았고, 그의 손아귀에서 겨우 살아남은 일부 군주들은효과적인 저항을 위한 방편으로 동맹을 맺어 연합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 왕국(시리아 왕국이라고도 불렀으며 그 수도는

다마스쿠스였습니다)과 이스라엘 왕국(에브라임 왕국이라고도 불렀 으며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의 동맹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 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로멜리야의 아들)는 앗시리아의 지 배를 거절하면서 힘을 합쳐 그 진격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로서 는 최소한의 성공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당대에 유일하게 앗시리 아를 견제할 수 있었던 세력, 곧 이집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이 이들 동맹국들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 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 사이의 안전하고도 신속한 연락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그들의 동맹에 끌어들이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유다 왕 요담은 그 동맹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받고 서도 그 양측에 의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중립적인 자 세를 지켰습니다. 요담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좌에 오릅니다. 아하스 역시 그 동맹에 동참하기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 쪽의 두 동맹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집트와의 직접적인 연락선을 확 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무력을 동원하여 유다의 영토를 침공 했습니다. 바로 이 군사 행동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 일컫습 니다. 이 무장개입과 동시에 유다 왕국에서는 근간에 유다에 편입되 었던 민족들, 특히 블레셋에 의한 일련의 국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시리아-에브라임과 합세한 자에게 왕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당하고 있던 아하스는 르신과 베가의 압력에 굴복하느냐아니면 앗시리아의 보호를 청해야 하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다시금 활동을 개시합니다. 예언자는 일련의 이 과정에 아주 맹렬하게 참여하되, 어디까지나 정치적 기준을 뛰어넘어선 관점에서 이를심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불신한 왕의 태도를 지지하면서이집트와의 연합을 구원의 기초로 간주하기를 거부했던 반면, 다른한편으로는 거꾸로 아하스를 반대하여 앗시리아 역시 불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대신에 앗시리아에게

서 해방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왕은 실제로 자신이 고대하던 그 해방을 앗시리아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은, 그것이 무자비한 노예화의 첫 발자국에 불과했기에 현혹적인 하루살이 해방에 불과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지는 이사야서와 열왕기하(16장과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앗시리아의 연대기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범자 아하스를 친구가 아닌 봉신(封臣)으로, 즉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많은 공물을 바쳐야 하는 속국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7:1-17; 7:18-25; 8:1-4; 8:5-8; 8:9-10; 8:11-15; 8:16-20; 9:7-20; 17:1-11절을들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시기: 히스기야가 어릴 적에 통치한 기간(주전 727-715년)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좌를 계승하지만, 나이가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이 어른이 될 때까지 섭정이 대신 다스렸습니다. 이 사이에 앗시리아 왕 디글랏빌라셀 3세도 죽고 샬마네셀 5세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의 동맹은 팔레스틴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한 앗시리아인에 의하여 깨집니다. 즉, 샬마네셀 5세에 의해 시작되어 사르곤 2세가 마무리 지은 2년 이상의 포위와 점령으로 기원전 722-721년에 결국수도 사마리아가 함락 당하고 이스라엘 왕국은 몰락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14:28-32; 18:1-7; 20:1-6; 28:1-4; 28:7-13; 28:14-22; 30:8-17절을 들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시기: 히스기야가 어른이 된 다음 통치한 기간(주전 715-687년)

유다 왕국은 20년 동안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주전 715년에 열 여덟 살이 된 히스기야는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압력을 받은 히스기야는, 앗시리아의 기분을 상

하게 하면서도, 종교적 내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다른 외세들(이집트와 바빌론)은 그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원조를 제공합니다. 부왕 아하스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반앗시리아연합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면, 그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히스기야는 정책을 바꿔 이집트가 선동하고 지원하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원전 712년경에 맺어진 아스돗 동맹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데, 굳이 아스돗 동맹이라 이름한 것은 블레셋의 이 도시에서 모종의 세력 다툼이 일어났고 이것이 반앗시리아연합세력은 물론 앗시리아의 무력 침공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제대로 저항해 볼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르곤 2세(주전 722-705년)는 711년 아스돗을 함락하여 앗시리아의 속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스돗에 동조했던 히스기야는 사르곤의 충직한 신하가 될 것을 서약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신탁이 18-2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05년까지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칩니다. 사르곤이 죽자 바빌론을 비롯하여 에돔, 모압, 페니키아, 아스돗, 유다 등이다시 앗시리아에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르곤의 뒤를 이어앗시리아의 황제가 된 산헤립(주전 705-681년)은 국내의 모반세력을제압하고 왕위를 든든히 다진 다음 제국의 서쪽에서 일어난 반란을진압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로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도시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릴 것만 같던 순간에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가 하는 것은 보고사료(報告史料)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산헤립의 연대기는 전쟁의 전반기에 거둔 승리만을 칭송하며 그 결말에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보고는 이를 침략자의 궁극적인 패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의 침묵에서 추측할 수 있는 더없이 흥미진진한점

은, 바로 그 순간까지 전개되던 사건들에서 보여지듯 당연하게 예측되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예기치 않은 결말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36절에서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하늘의 개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앗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그 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언자가 히스기야를 격려하고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발언하고 있는 36-37장에 폭넓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앗시리아를 거슬러 선포된 신탁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특별히 산헤립의 파괴적인 분노(10:27-33 참조)가 자초하여 그가 거둬들여야 할 공포와 전율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신탁들로는 1:4-9; 10:5-16; 10:27-34; 14:24-27; 28: 23-29; 29장; 30:1-7; 30:27-33; 31:1-9; 32:1-8; 32:9-14; 33장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사야 1-39장을 읽을 때에는 먼저 색연필로 본문을 위에서 제시한 네 시기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 3. 제1이사야의 회고

제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훼는 구원 이시다'라는 뜻이지요. 나라와 사회가 혼란할 때에 예언자로 불림 받 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 언자로 불림 받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언자 아모스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아모스인데, 웃시야 왕의 부왕인 아마샤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즉, 저는 왕족의 혈 통을 타고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 왕궁 안에서 늘 왕들을 보필하 는 조언자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조국 유다는 시리아 - 에브라임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가 하면, 산헤립이 이끄는 앗시리아군에 의해서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 이름처럼 위기가 닥칠 때마다 헤쳐 나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리아-에브라임 연합군의 침공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한낱 횃불의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 셨고, 유다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앗시리아군의 포위 공격시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깨 달음을 주셔서 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어요. 변화무쌍한 국제무대에서 힘겨루기에 매여 이리저리 흔들 리지 말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 써 주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읽은 1-12장에 나오는 저의 신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분은 징벌의 도구로 여러 민족을 끌어들이신다. 그러나 징벌의 도구로 이용된 민족들이 스스로 그분의 단순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 만용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응징하신다. 한편, 이스라엘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텐데, 그분은 이들을 중심으로 당신 백성의 회복에 나서실 것이다. 마침내 이 모든 위업, 곧 이스라엘의 징벌과 이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으로 이어진다.